



스위스재보험 시그마 보고서 - 2012년 자연재해 및 인적재해로 인해 미화 770억 달러의 보험 손실 및 미화 1천 86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 발생

Contact: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Lucia Bevere, Zurich
Telephone +41 43 285 9279

Thomas Holzheu, Armonk
Telephone +1 914 828 6502

Clarence Wong, Hong Kong
Telephone +852 2582 5644

Swiss Re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www.swissre.com

- 2012년 자연재해 및 인적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미화 1천 860억 달러 기록
- 2012년 보험 업계는 미화 770억 달러의 보험 손실로 인해 역사상 세번째로 큰 보험 손실을 기록
- 미국 기후 관련 이벤트가 보험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

2013년 3월 27일, 취리히 — 스위스재보험이 최근 발간한 시그마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자연재해 및 인적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미화 1천 860억 달러, 사상자가 약 14,000명에 이른다. 미국 내 대규모 기후 관련 이벤트로 인해 해당 년도 총 보험 손실액은 미화 770억 달러로 역사상 세번째로 큰 보험 손실을 기록했다. 해당 금액은 역사상 최고치인 미화 1천 260억 달러 이상의 보험 손실액을 기록했던 2011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진 및 홍수로 인한 손실 대비 현저하게 낮다.

2012년 보험 손실의 대부분 미국 내 기후 관련 이벤트가 차지

2012년의 보험 손실은 미국 내 대규모 기후 관련 손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2년 상위 10개 대규모 보험 손실 중 9개가 미국 내에서 발생하였다.¹ 북미 내의 높은 보험 심도로 인해 해당 지역 내 경제적 손실인 미화 1천 190억 달러의 절반이 넘는 미화 650억 달러가 부보되었다.

스위스재보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커트 칼(Kurt Karl)은 "미국 내 심각한 기후 관련 이벤트들로 인해 개인, 커뮤니티, 그리고 기업들이 재해로 인한 엄청난 손실로부터의 회복을 돕는 보험의 가치와 중요한 역할을 상기시켜 주었다. 하지만, 극단적인 기후에 취약한 전 세계의 많은 부분들이 낮은 보험 심도로 인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허리케인 샌디는 경제적 손실 및 보험 손실 두 가지 면에서 모두 해당 년도 내 가장 큰 규모의 이벤트였다.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미화 700억 달러로 예상되어,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손실을 기록한 허리케인이다. 보험 손실액은 약 미화 35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 미화 200억에서 250억 달러가 민간 보험 부문에서 부보되었다.

나머지 보험 손실은 NFIP(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전국 홍수 보험 프로그램)에서 부담하였다. 손실의 원인은 북대서양 허리케인 사상 최대의 풍폭(wind span)과 많은 인구가 밀집한 미국 동부 연안 지역에 홍수를 유발한 뒤이은 대규모 폭풍 해일이었다. 이는 또한 미국 역사상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최악의 정전으로 이어졌다. 허리케인 샌디는 또한 카리브해 지역을 강타한 후, 북쪽으로 이어져 캐나다에까지 영향을 미쳐 인명과 재산에 손실을 더하였다.

그룹 언더라이팅 최고 책임자인 마티아스 웨버(Matthias Weber)는 "허리케인 샌디는 기록적인 풍역(wind field)과 폭풍 해일이 결합되어 보험 업계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유사한 이벤트의 빈도가 증가하고 미국 동북부와 같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강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극단적인 폭풍 해일들에 대한 이해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시그마 보고서의 시뮬레이션은 2050년까지 10인치(0.25미터)의 해수면 상승이² 어떻게 극단적인 홍수 손실 발생 가능성을 거의 두배에 가깝게 증가시킬 것인지를 보여준다. 이는 보험 업계에 있어서는, 미화 200억

¹ 표 1 참조

달러에 달하는 보험 손실을 유발하는 이벤트가 현재 250 년에 한 번으로 예상되는 것에서 140 년에 한번으로 예상되는 것을 의미한다.³

사상 최고의 농업 손실 기록

미국 내에서의 기록적인 더위와 극단적으로 건조한 기후 조건이 최근 몇 십년간 최악의 가뭄으로 이어져, 미국 지역의 절반 이상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 옥수수 지대 내에서의 심각한 흉작이 연방 MPCI(Multi-Peril Crop Insurance, 다중 위험 자연재해 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지급금을 포함하여 미화 110 억 달러의 보험 농업 손실을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2012 년 가뭄이 농업 보험에 있어서 사상 최고의 손실액을 기록했다. 이번 미국곡창 지대 내에서의 기록적인 가뭄을 통해 수천명의 농부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보험의 경제적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탈리아 내 사상 최대 지진 보험 손실 기록

낮은 빈도의 상대적으로 약한 일련의 지진들이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발생해 이탈리아 역사상 최대의 보험 손실인 미화 16 억 달러를 초과하는 보험 손실을 기록했다. 해당 지진들의 총 경제적 손실은 미화 160 억 달러였다. 스위스재보험의 지진 리스크 책임자인 발즈 그롤리문드(Balz Grollimund)는 "여전히 상당한 규모이긴 하지만, 보험 손실은 해당 이벤트의 전체 피해액의 일부분이다. 이탈리아는 다수의 진원(seismic sources)이 있음에도, 지진 리스크에 대한 높은 익스포저를 가진 선진국들중에 가장 낮은 수준의 지진 보험 심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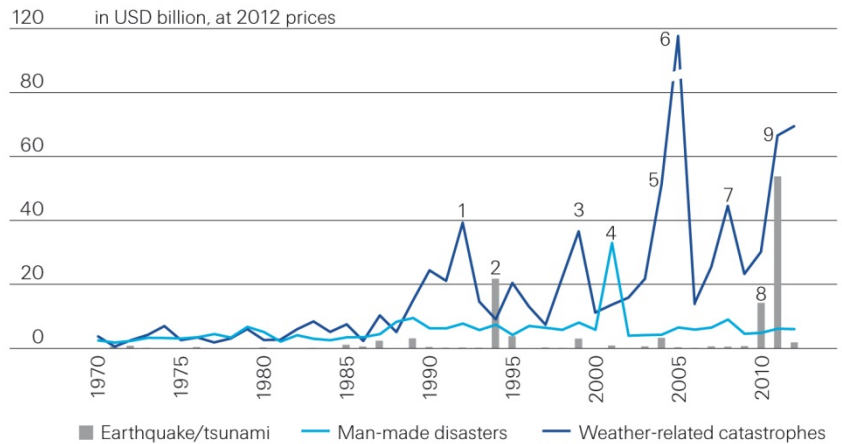
해당 내용은 뉴욕주를 위해 수행된 아래 최근 연구에서 제시된 범위 내에 있다.

Horton, R. et al. (2011): Climate risks.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n New York State: The ClimAID Integrated Assessment for Effective Climate Change Adaptation: Technical Report", Rosenzweig, C. et al. (Eds.).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pp. 15-48

3 표 2 참조



Insured catastrophe losses 1970–2012



- | | |
|---|--|
| 1 1992: Hurricane Andrew | 6 2005: Hurricanes Katrina, Rita, Wilma |
| 2 1994: Northridge earthquake | 7 2008: Hurricanes Ike, Gustav |
| 3 1999: Winter Storm Lothar | 8 2010: Chile, New Zealand earthquakes |
| 4 2001: 9/11 attacks | 9 2011: Japan, New Zealand earthquakes, Thailand flood |
| 5 2004: Hurricanes Ivan, Charley, Frances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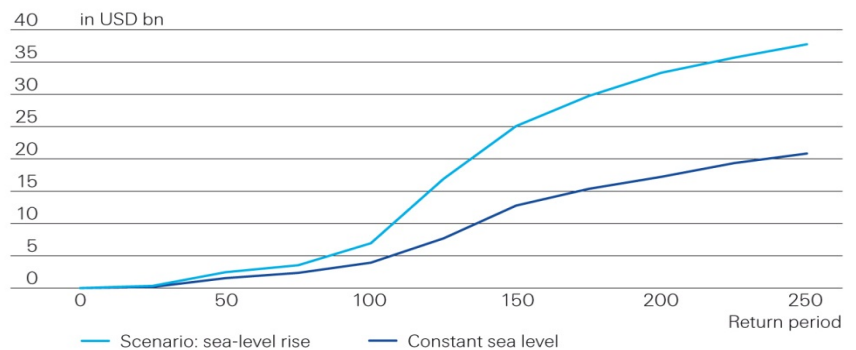
Source: Swiss Re Economic Research & Consulting

The most costly insured catastrophe losses in 2012

	Insured losses ¹ (in USDbn)	Date	Event	Country
1	35	Oct/Nov	Hurricane Sandy	US (et al) [2]
2	11	Jul/Sep	Drought in the Corn Belt	US [3]
3	2.5	March	Severe storms, tornadoes	US [4]
4	2.5	April	Severe storms, tornadoes	US [4]
5	2.0	July	Derecho storm	US [4]
6	1.7	May	Thunderstorms, tornadoes, hail	US [4]
7	1.6	May	Earthquakes M_w 5.9 and M_w 5.8	Italy [5]
8	1.6	August	Hurricane Isaac	US [6]
9	1.0	June	Thunderstorms, tornadoes, hail	US [4]
10	1.0	June	Thunderstorms, >tornadoes, hail, flooding (Wichita)	US [4]

- [1] Property and business interruption, excluding liability and life insurance losses
 [2] Swiss Re estimate. Includes private insurance market loss of USD 20 to 25 billion and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losses
 [3] Swiss Re estimate. Includes losses from Multi-Peril Crop Insurance (MPCI) States in the Corn Belt: IL, IN, IA, MI and parts of NE, KS, MN, MO
 [4] With the permission of Property Claims Services (PCS)
 [5] With the permission of Perils AG. The estimate has not been officially published
 [6] Swiss Re estimate. Includes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losses

A 10 inch rise in sea levels will increase insured losses for events that occur every 200 years from USD 17 billion to USD 34 billion



Source: Swiss Re



편집자 주:

용어 및 선정 기준	
자연 재해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사고
인적 재해	인간의 활동과 연관된 사고
재해 보험 손실	재해로 인한 손실액 중 재물보험이 담보하는 손해
총 경제적 손실	보험이 담보하지 않는 재해 손실을 포함한 총 손실
최저 선정 기준	
총 손실	미화 9,110 만 달러
또는 재물보험 손실	해운: 미화 1,830 만 달러 항공: 미화 3,670 만 달러 기타: 미화 4,550 만 달러
또는 인명피해	사망자 및 실종자: 20 부상자: 50 이재민: 2 000

스위스리 (Swiss Re)

스위스리 그룹은 재보험, 보험, 및 기타 보험 기반 위험 이전 상품을 제공하는 선도적 기업이다. 고객과 직접 또는 브로커사를 통해 전 세계에 기반을 둔 보험사, 중대형 기업, 공공 부문과 거래를 하고 있다. 표준 상품부터 맞춤형 상품에 이르기까지 전 사업 분야에 걸치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본력, 전문성, 혁신력을 기반으로 기업과 사회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1863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창립된 이래, 스위스리는 전세계 60 개에 이르는 사무소를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로부터 'AA-'를, 무디스(Moody's)로부터 부터 'A1'을, 에이엠 베스트(A.M. Best)로부터 부터 A +등급을 각각 부여 받고 있다. 스위스리(Swiss Re Ltd)는 SIX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SREN). 더 자세한 사항은 www.swissre.com 혹은 트위터(@SwissRe)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